



초

점

## 중국 진출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경영실태 분석과 시사점

김 주 영/국별조사실 동북아팀장

- I. 머리말
- II.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 III. 현지법인의 경영 실태
- IV. 현지법인의 매출·매입과 차입금 조달 실태
- V. 시사점 및 진출방안

### 요 약

이번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 분석은 2006년 결산서 제출 기업 933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중국 투자의 94.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결산서 제출이 많지 않아 62.1%에 불과하다. 영업시작 연도별로는 1999년 이전이 217건으로 23.3%를, 결산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년의 비중이 44.8%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17건으로 87.6%를 차지하여 중국 진출 현지법인 제조업 비중 79.5%보다 높다.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면, 적자를 내는 기업의 비율이 49.7%로 나타나 2005년의 51.8%에 비해 2.1% 포인트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결산연도를 포함한 최근 영업개시 연도의 기업이 얼마나 포함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곤란하다. 따라서 동일기업으로 2004~06년 3개년간 결산서를 제출한 264건의 경영성과를 살펴보았다.

동일기업의 적자비율이 2004~06년에 차례로 50.8%, 45.8%, 29.5%로 낮아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43.0%에서 28.5%로, 중소기업은 61.1%에서 31.0%로 낮아졌고, 법인 형태별로는 단독법인은 52.8%에서 29.9%로, 합작법인은 44.9%에서 28.6%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베이징(北京)의 적자비율이 16.1%로 가장 낮고, 뒤이어 톈진(天津), 장쑤(江蘇), 광둥(廣東), 산둥(山東), 저장(浙江), 상하이(上海), 랴오닝(遼寧) 순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적자비율이 각각 29.0%, 34.8%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는 조립 금속이 11.1%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자동차, 음식료, 기계, 전자통신 순으로 높다. 비제조업은 운수창고가 모두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도소매의 적자비율이 42.9%로 높다.



933건의 매출처를 보면, 현지 판매가 50.2%, 제3국 수출 33.4%, 한국 수출 16.4%이다. 원·부자재 매입처로는 한국 수입이 41.0%, 현지 매입 44.0%, 제3국 수입 15.0%이다. 이들 기업의 투자에 의한 순수출 유발효과가 82.4%로 2005년에 비해 53.1% 포인트 낮아졌다. 동일기업의 2004~06년 순수출 유발효과는 차례로 170.2%, 176.8%, 139.6%로 나타나 원·부자재 현지 조달비율이 증가한 점이 반영되었다. 933건의 업종별 매출을 보면, 자동차, 화학, 1차 금속, 조립금속, 음식료 등 업종의 현지 매출이 80%를 상회한 반면, 전자통신, 섬유 의복은 30% 안팎에 불과하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섬유 의복 업종이 43.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제조 31.5%이며, 제3국 수출은 조립금속, 전자통신, 플라스틱 등 업종이 비교적 높다.

차입금 조달을 보면, 933개 기업 가운데 54.7%인 510개 기업이 추가로 95.3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여 차입금 조달기업의 투자금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70.1%로 나타났다. 차입금은 중국계 현지금융 활용이 24.9%인 23.8억 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제3국 은행, 국내은행, 중국 진출 한국계 은행 순이다. 현지법인 대부분이 국내 본사의 담보제공을 토대로 차입하였다.

결산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면, 첫째, 투자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순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법인 형태에 따른 경영성과는 큰 차이가 없다. 셋째, 경쟁력 있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진출이 수익성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넷째, 내수시장 비중이 높을수록 원·부자재 현지조달 비율이 높다. 다섯째, 현지법인의 영업을 정상화될수록 순수출 유발효과가 커지고 현지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여섯째, 중국을 생산기지로써보다는 개척해야 할 시장으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일곱째, 투자금액 외에 충분한 여유자금 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진출방안을 모색해 보면, ① 저임 노동력 활용의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 ②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공동으로 진출, ③ 다국적기업과의 경쟁 정도가 낮은 분야 이면서 중국 기업에 비해 우리 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업종이나 분야로 진출, ④ 현지금융 수요에 대비한 국내 은행의 적극적인 중국 진출 확대 등이다.

## I. 머리말

중국 경제의 개방화 진전이 가속화될수록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중국과의 수출과 수입이 각각 18.0%와 30.0%로 증가하여 중국이 명실상부하게 수출에 이어 수입에서도 1위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도 지난해 말까지 투자 기준으로 18,042건, 225.4억 달러로 전체 해외직접투자 건수와 금액의 각각 46.1%와 24.6%를 차지하였다. 대 중국 투자기업의 증가로 인해 이들에 대한 경영분석이 그 동안 적지 않게 이루어졌으며,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진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왔다<sup>1)</sup>. 본 보고서도 기왕에 이루어진 내용들과 크게 다를 것은 없다. 다만, 종전에 이루어진 연구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설문과 방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반면, 이번 분석은 외국환거래규정<sup>2)</sup>에서 정한 연간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에 의거 진행되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결산보고서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지법인의 수익, 매출·매입, 차입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설문이나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임금 상승, 환경규제 등과 같은 경영환경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밝히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하 본 보고서는 중국 진출 현지법인의 경영상황을 수익, 매출·매입, 차입 측면에서 법인형태별, 업종별, 지역별로 분석한 다음, 우리 기업의 진출 시의 시사점 및 진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Ⅱ.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 1. 법인형태별 현황

2007년 말 현재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는 투자기준으로 18,042건, 225.4억 달러이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창 진행되던 1998~99년에 우리의 중국 투자는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하여 2007년에 건수와 금액이 각각 2,073건, 52.3억 달러로 중국의 투자환경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에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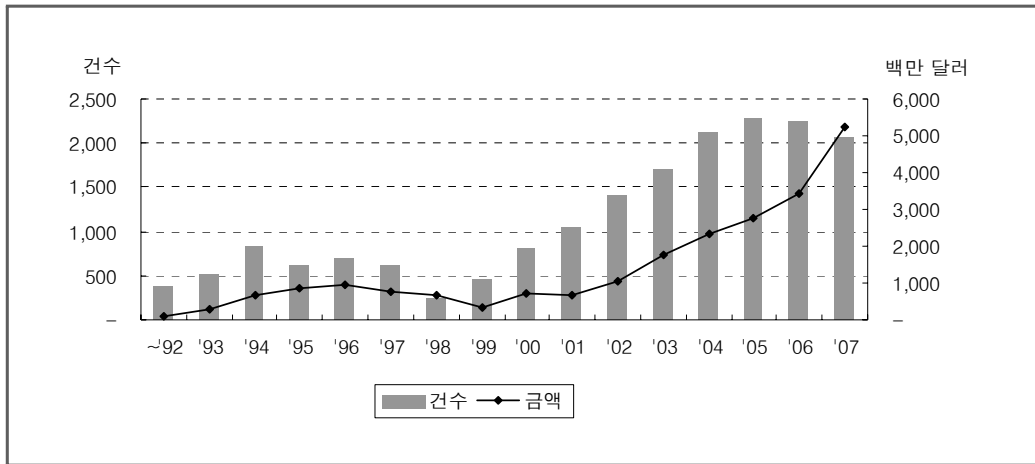
1) 무역협회(1995), 대한상공회의소(1997, 1998, 2002), KOTRA(2003), 전국경제인연합회(2004), KIEP(2004) 등이 분석하였음.

2) 외국환거래규정(1999년 제정)의 '제9-12조 보고서 등 제출'에 의하면, 해외투자자는 연간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에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3) 2007년부터 금융부문 투자금액(6.6억 달러)이 해외투자 통계에 포함되면서 금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함.



<그림 1> 우리나라의 연도별 중국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같음)

이번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경영현황 분석은 투자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2006년에 결산서를 제출한 기업 933건의 101.5억 달러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기업을 법인형태별로 보면, 단독투자 법인이 733건에 투자금액이 66.9억 달러이고, 합작투자 법인은 200건, 34.6억 달러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79건(분석대상의 62.1%)에 27.4억 달러(분석대상의 27.0%)이고, 대기업이 354건에 70.1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중국 투자 건수 기준으로 94.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적게 포함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의 건당평균 투자규모가 57만 달러에 불과, 많은 기업들이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영업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도별 기업 분포를 보면, 1999년 이전이 217건으로 23.3%를 차지하고, 최근 연도로 가까워지면서 증가하여 2004년, 2005년에 영업을 개시한 기업이 공히 16.4%, 결산보고서 제출 당해연도인 2006년에 영업을 시작한 기업이 12.1%이다.



&lt;표 1&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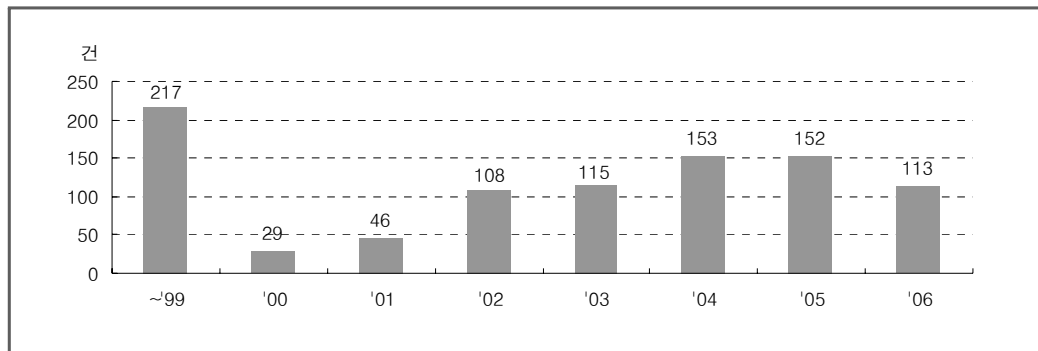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형태(2006년)

단위: 건, 백만 달러

		단 독		합 작		계
			비 중		비 중	
분석대상	건 수	733	78.6	200	21.4	933
	금 액	6,690.0	65.9	3,461.7	34.1	10,151.7
	건 당규모	9.1	-	17.3	-	10.9
전 체 중 국 투 자	건 수	10,998	68.9	4,971	31.1	15,969
	금 액	10,638.1	61.5	6,667.7	38.5	17,305.8
	건 당규모	1.0	-	1.3	-	1.1

&lt;그림 2&gt;

영업시작 연도별 현지법인 분포



## 2. 업종별·지역별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817건, 116건으로 각각 87.6%, 12.4%를 차지하여,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중국 진출 현지법인 제조업 비중인 79.5%보다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분석대상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건당 평균 투자규모가 각각 1,144만 달러, 691만 달러로 나타나 비제조업 중 규모가 큰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통신이 전체의 19.4%인 181건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자동차, 섬유 의복, 기계, 화학, 조립금속 순이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도소매, 운수창고 순으로 많다.



<표 2> 분석대상 기업의 업종별 분포

단위: 건, %

	제 조 업											비제조업				계
	전자 통신	자동 차	섬유 의복	기계	화학	조립 금속	1차 금속	음식 료	플라 스틱	기타	소계	도소 매	운수 창고	기타	소계	
건수	181	126	97	87	65	62	34	32	19	114	817	24	18	74	116	933
비중	19.4	13.5	10.4	9.3	7.0	6.6	3.7	3.4	2.1	12.2	87.6	2.6	1.9	7.9	12.4	100

진출 지역별로 보면, 산둥(山東), 장쑤(江蘇), 톈진(天津), 베이징(北京), 랴오닝(遼寧) 등 우리기업 진출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2006년까지 우리기업의 중국 지역별 진출은 산둥 35.9%, 랴오닝 13.7%, 톈진 8.7%, 장쑤 8.2%, 베이징 7.5%, 상하이(上海) 6.0%, 저장(浙江) 3.4%, 광둥(廣東) 3.0% 순이었다. 여기서도 건당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산둥, 랴오닝으로 진출 기업들이 절대 투자건수 대비 적게 포함된 반면, 장쑤, 톈진, 베이징은 많이 포함되었다.

<표 3> 분석대상 기업의 중국 지역별 분포

단위: 건, %

	山東	江蘇	天津	北京	遼寧	上海	廣東	浙江	기타	계
건수	292	163	103	91	68	67	52	31	66	933
비중	31.3	17.4	11.0	9.8	7.3	7.2	5.6	3.3	7.1	100

### Ⅲ. 현지법인의 경영 실태<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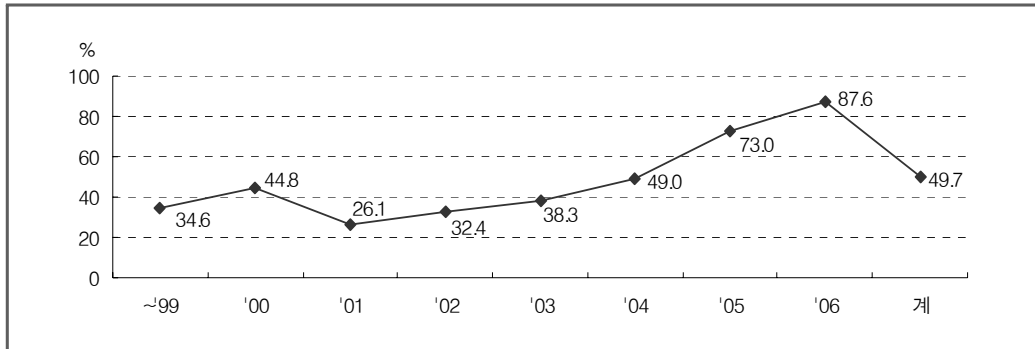
#### 1. 연도별 경영실태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면, 진출 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중국 진출기업 수 대비 경영적자 기업 수의 비율(이하 ‘적자비율’이라 함)이 <그림 3>처럼 49.7%로 나타났다.

4) 현지법인의 수익상황을 적자비율을 통해 살펴본 것임.



<그림 3> 영업시작 연도별 현지법인 적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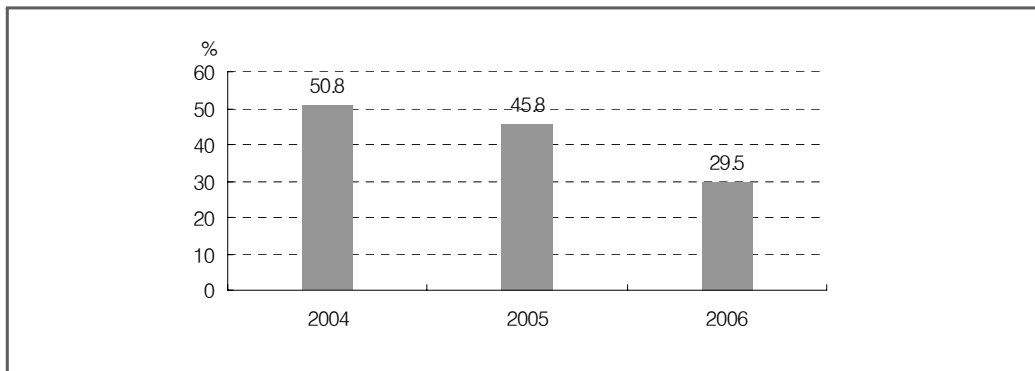


주: 2006년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중국 진출 현지법인의 영업시작 연도별 적자비율임.

2005년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598개 기업의 적자비율 51.8%에 비해 적자비율이 2.1% 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가운데 결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영업 기간이 짧은 기업이 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2005년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598개 기업 중 결산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연도 비중이 51.5% (308건)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06년에는 결산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연도 비중이 44.8%(418건)로 낮아진 점이 작용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체로 영업시작 연도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흑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림 4>와 같이 2004~06년에 결산보고서를 공히 제출한 기업 264건을 분석한 결과, 적자기업이

<그림 4> 동일기업의 결산 연도별 적자비율 추이



주: 3개 연도 결산보고서를 공히 제출한 기업의 적자비율임(이하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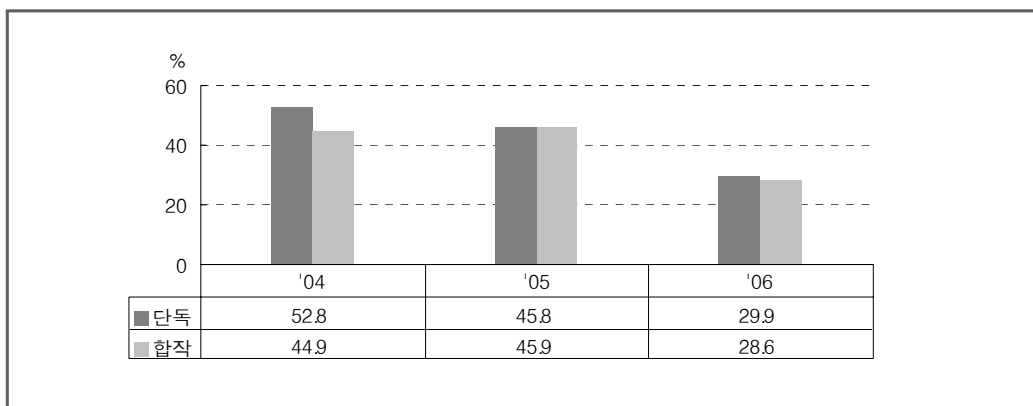
2004년 대비 2005년, 2006년에 각각 13개, 56개 축소되어 적자비율이 2004년 50.8%에서 2005년 45.8%, 2006년 29.5%로 크게 감소되었다.

## 2. 법인형태별 경영실태

법인형태별로 경영상황을 보면, 합작법인의 적자비율이 46.0%인 반면, 단독법인은 50.8%로 단독법인이 4.8% 포인트 높다. 2005년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598개 기업도 합작법인과 단독법인의 적자비율이 각각 48.9%, 52.7%로 단독법인이 3.8%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중국 진출기업의 법인형태별 경영상황은 단독법인보다는 합작법인이 더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04~06년에 공히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264건을 대상으로 법인형태별 경영상황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 5>에서 나타난 것처럼 합작법인의 적자비율이 2004년 44.9%에서 2005년 45.9%로 1.0% 포인트 증가한 후 2006년에는 28.6%로 낮아졌다. 단독법인의 적자비율은 같은 기간에 차례로 52.8%, 45.8%, 29.9%로 합작법인과 비슷한 추이로 변화되고 있다. 다만, 미미하나마 합작법인의 적자비율이 단독법인보다 1.3% 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첫째로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합작법을 설립하고(<표 1> 참조), 둘째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현지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고, 셋째로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한

<그림 5> 동일기업의 법인형태별 적자비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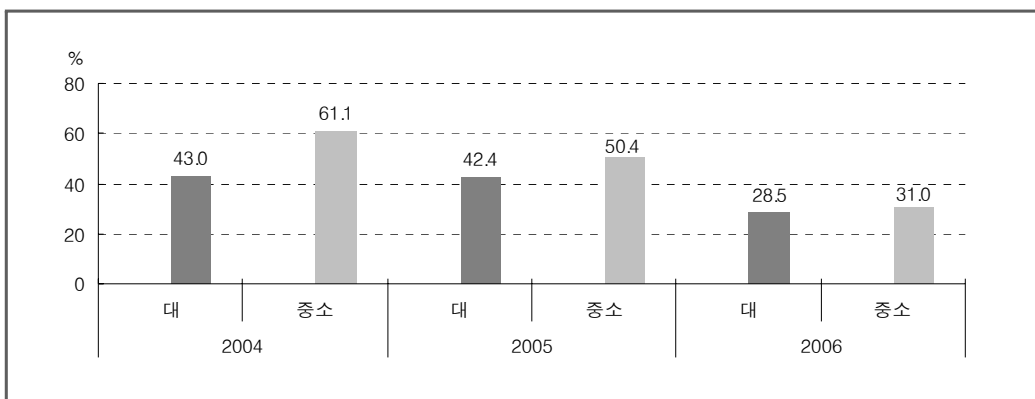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단독법인은 초기에 적자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지 경영환경과 시장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동 비율이 합작법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인형태가 경영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기업의 규모별 경영상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적자비율이 53.5%로 대기업의 43.5%에 비해 8.0%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법인형태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적자비율은 합작법인에서 54.7%, 단독법인에서 53.4%이고, 대기업의 적자비율은 합작법인에서 40.8%, 단독법인에서 45.0%로 미미하지만, 중소기업은 합작법인에서, 대기업은 단독법인에서 적자비율이 각각 1.3%, 4.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2004~06년에 공히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264건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상황이 기업규모에 따른 법인형태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규모나 투자법인의 형태에 관계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적자비율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법인형태에 관계없이 2004년에 대기업에 비해 적자비율이 20%를 상회하고, 대기업의 합작법인이 2005년에 적자비율이 전년에 비해 10.7% 포인트 증가한 것이 특이하다. 사업 초기 중소기업의 높은 적자비율은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경영관리 능력 부족, 사업타당성 준비 소홀, 합작법인에서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005년에 대기업의 적자비율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적자 단독법인 5개가 합작법인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합작법인 적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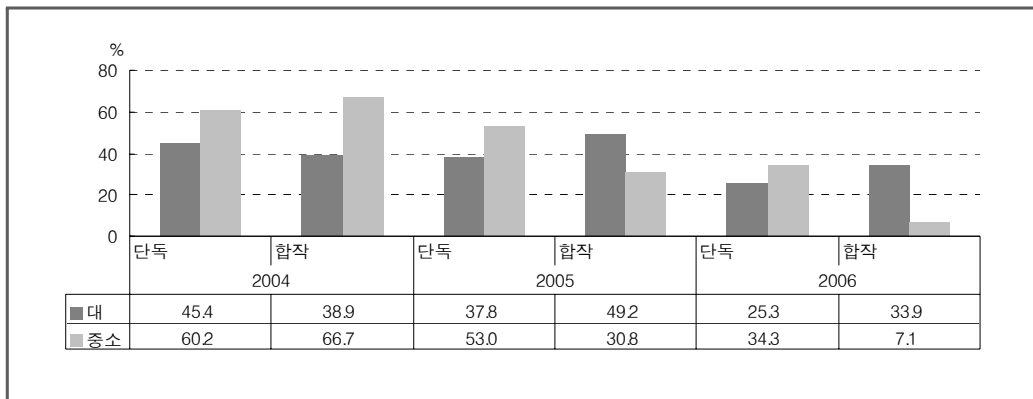
&lt;그림 6&gt;

동일기업의 기업규모별 적자비율





<그림 7> 동일기업의 법인형태별 적자비율



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것은 대기업의 합작법인이 중소기업에 비해 4배<sup>5)</sup>로 많은데 이들 합작법인의 경영 업종이 우리나라의 주력 업종이 아닌 섬유·의복, 비철금속, 기타 등이 많이 포함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 3. 지역별 경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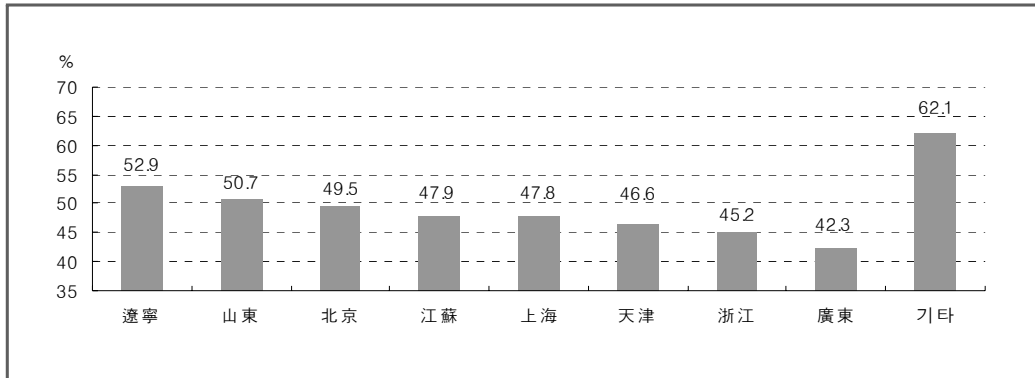
진출 지역별 경영상황을 보면, 적자비율은 랴오닝(遼寧)이 52.9%로 가장 높고, 산둥(山東), 베이징(北京), 장쑤(江蘇),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저장(浙江), 광둥(廣東) 순으로 낮다. 주목할 점은 동부 연해지역 이외 지역, 특히 중국정부가 서부 대개발 등과 같이 지역개발을 추진 중인 중서부 내륙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적자비율이 62.1%로 높게 나타난 점은 동부 연해지역에 비해 우리기업이 진출하여 영업을 시작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04~06년에 공히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264건의 지역별 적자비율을 보면, 베이징이 16.1%로 가장 낮고, 그 뒤를 톈진, 장쑤, 광둥, 산둥, 저장, 상하이, 랴오닝 순으로 따르고 있다. <그림 9>에서처럼 2005년에 톈진, 광둥에서 적자비율이 전년에 비해 높아지는 등 변동이 심한 반면, 2006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적자비율이 낮아졌다. 이 같은 결과는 2004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기업이 19%에 불과하는 등 영업개시연도가

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작법인 수는 각각 56건, 14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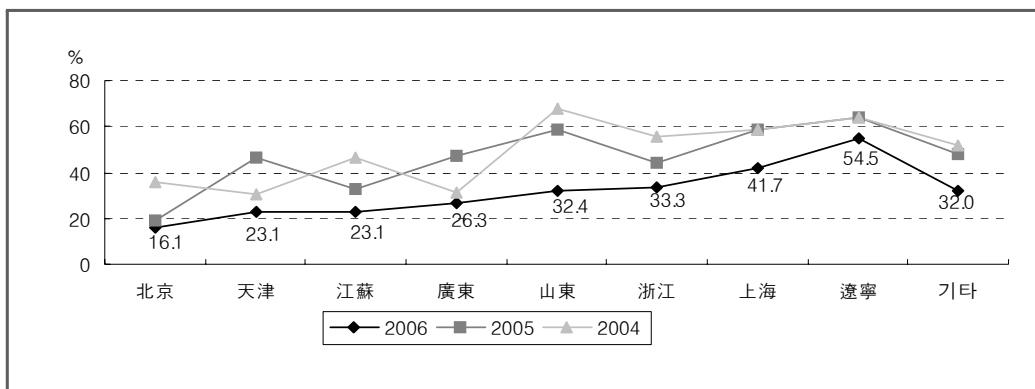


<그림 8> 지역별 적자비율



오래된 기업이 많이 포함된 때문으로 해석된다. 베이징, 톈진, 장쑤에 진출한 기업의 적자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베이징의 현대자동차와 장쑤의 기아자동차 등에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하는 기업과 장쑤와 톈진의 전자통신 기업들의 상당수가 흑자 전환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랴오닝, 상하이 등이 적자비율이 높은 데에는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업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전자통신 분야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진출하기 보다는 해외 바이어 중심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동일 업종의 특정지역 공동 진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 점이 부분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동일기업의 지역별 적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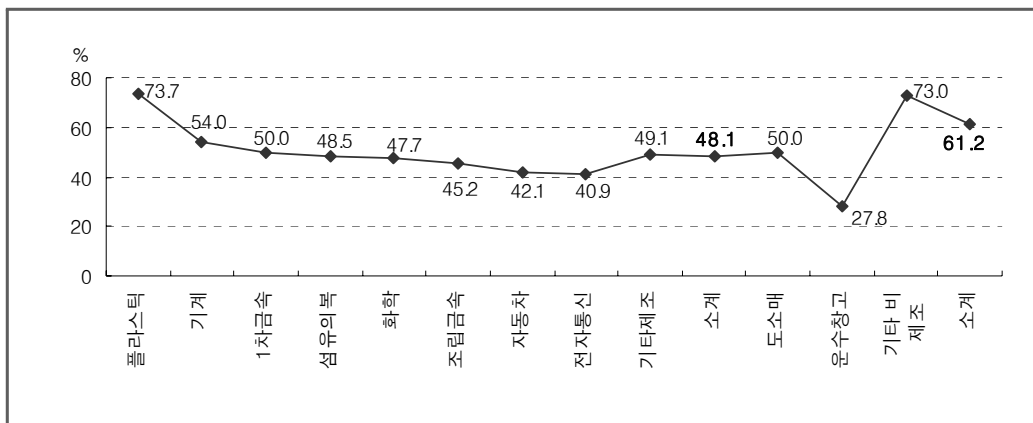
## 4. 업종별 경영실태

업종별 경영상황을 보면, 제조업의 적자비율이 48.1%로 비제조업의 61.2%보다 낮게 나타났다. 제조업을 분야별로 보면, 전자통신, 자동차 업종의 적자비율이 각각 40.9%, 42.1%로 낮고, 그 다음으로 조립금속, 화학, 섬유 의복, 1차 금속, 기계, 플라스틱 등 업종 순이다. 제조업 중에서 플라스틱 업종의 적자비율이 70%를 상회하였다. 비제조업은 운수창고(고속버스 운송사업)가 27.8%로 낮고, 도소매는 50.0%로 높다. 운수창고의 적자비율이 낮은 이유는 1990년대 중반에 진출한 운수창고 18개 기업 가운데 13개가 순이익을 시현한 때문이다. 운수창고를 제외할 경우 제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비제조업의 적자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4~06년에 공히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264건의 업종별 적자비율을 보면, 제조업의 적자비율이 2004년 51.0%, 2005년 46.5%, 2006년 29.0%로 크게 낮아졌다. 각 업종별로도 모두 전년대비 적자비율이 낮아졌는데 특히 조립금속, 자동차, 음식료, 기계, 1차 금속, 섬유 의복 업종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반면, 전자통신, 플라스틱, 화학 업종의 경우 적자비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기 보다는 변동성을 보이며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이들 업종에서 다국적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제조업에서도 같은 기간에 적자비율이 47.8%, 39.1%, 34.8%로 하락하였다. 고속버스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4개 기업이 3년 연속 흑자를 유지

<그림 10>

업종별 적자비율







<표 4> 공급처별 매출과 매입

단위: 억 달러, %

	매 출				매 입			
	현지 판매	한국 수출	제3국 수출	계	현지 매입	한국 수입	제3국 수입	계
규모	259.8	85.1	172.9	517.8	181.1	168.7	62.2	412.0
비중	50.2	16.4	33.4	100	44.0	41.0	15.0	100

에 기여한 셈이다<sup>6)</sup>. 2005년 결산서 제출 598개 기업이 대 중국과의 상품수지 흑자에 기여한 91.3억 달러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들 기업의 투자에 따른 투자잔액 대비 순수출 유발효과<sup>7)</sup>가 82.4%로 2005년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 598개 기업의 135.5%보다 무려 53.1%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2004~06년에 공히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264개 기업의 투자에 따른 순수출 유발 효과가 2004년 170.2%에서 2005년 176.8%로 6.6%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139.6%로 전년대비 37.2% 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는 2006년 결산서를 제출한 933개 기업의 우리나라 상품수지 흑자에 대한 기여 규모가 2005년 결산서를 제출한 598개

<표 5> 중국 진출 투자기업의 순수출 유발효과

단위: %, 억 달러

		순수출 유발효과(%) (B/A)	투자 잔액 (A)	순수출 (B)	중국 수출	중국 수입
전체	2005년(598건)	135.5	67.4	91.3	140.5	49.2
	2006년(933건)	82.4	101.5	83.6	168.7	85.1
동일 기업	2004년(264건)	170.2	36.2	61.6	82.6	21.0
	2005년(264건)	176.8	47.8	84.5	109.4	24.9
	2006년(264건)	139.6	53.8	75.1	110.2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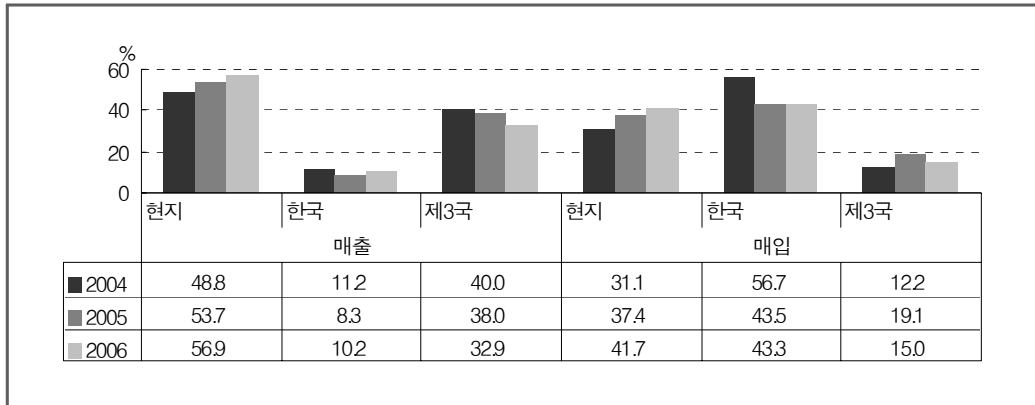
6)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거둔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209.0억 달러, 189.6억 달러임.

7) 순수출 유발효과는 현지법인 설립에 따라 직접적으로 수출되는 투자설비와 원·부자재가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현지법인이 이미 설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로의 제품 수출금액과 이 제품 생산을 위해 우리나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금액의 차이만을 계산함.



&lt;그림 12&gt;

동일기업의 연도별 매출과 매입처 변화



법인의 기여 규모에 비해 크게 낮아진 점과도 일치한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중국의 투자환경변화로 인해 원·부자재의 국내 수입보다는 중국 진출 협력업체나 중국 기업을 통해 구입하는 경향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4~06년에 공히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264건의 현지법인 매출과 매입처를 보면, 매출처에서는 현지 매출 비중이 2004년의 48.8%에서 2006년에 56.9%로 높아진 반면, 한국 수출과 제3국 수출은 각각 1.0%, 7.1% 포인트 감소하였다. 중국에 대한 내수판매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셈이다. 매입처에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 비중이 2004년 56.7%에서 2006년에 43.3%로 감소한 반면, 현지와 제3국 매입은 같은 기간 각각 10.6% 포인트, 2.8% 포인트 증가하였다. 가격 경쟁으로 현지와 제3국으로부터의 조달 증가가 한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을 축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지역별 매출·매입

중국 지역별 현지법인의 매출과 매입을 보면, 베이징의 현지판매 비중이 89.7%로 매우 높고, 그 다음으로 저장, 상하이, 장쑤, 산둥 순이다. 베이징과 저장의 현지판매 비중이 높은 이유는 각각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현지 수요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은 산둥이 3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상하이, 저장, 광둥 순이다. 제3국 수출은 광둥에서 62.8%로 가장 높고, 랴오닝, 톈진에서 50%대 수준이다.



<표 6>

지역별 매출과 매입

단위: %

	매출			매입		
	현지	한국	제3국	현지	한국	제3국
北 京	89.7	3.5	6.8	67.7	23.0	9.3
浙 江	68.7	17.9	13.4	45.2	28.9	26.0
上 海	68.4	21.8	9.8	58.4	34.6	6.9
江 蘇	47.8	15.1	37.1	39.6	46.8	13.6
山 東	47.5	30.5	22.0	41.3	42.0	16.7
遼 寧	35.5	12.5	51.9	51.8	40.4	7.8
天 津	34.4	15.2	50.5	42.3	44.2	13.6
廣 東	19.7	17.5	62.8	26.5	44.9	28.7
기 타	73.0	21.0	6.0	66.6	25.4	8.0

원·부자재의 현지 조달 비중은 베이징이 67.7%로 가장 높고, 상하이, 랴오닝도 50%를 상회한다. 한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은 장쑤가 46.8%로 가장 높고 광둥, 톈진, 산둥, 랴오닝에서 40%대의 비중을 나타낸다. 제3국 비중은 광둥이 28.7%로 제일 높다. 주목되는 점은 동부 연해지역이 아닌 중서부 내륙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현지 매입 비중이 66.6%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물류비용과 납기 등을 고려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면, 베이징, 저장, 상하이 등과 같이 내수시장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원·부자재의 현지조달 비율이 높고, 광둥, 랴오닝, 톈진과 같이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지역별 상품수지 흑자 기여는 장쑤 진출 현지법인이 26.6억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뒤를 톈진 23.5억 달러, 광둥 10.7억 달러, 산둥 9.6억 달러, 베이징 6.5억 달러 순이며, 유일하게 기타에 해당되는 중서부 내륙지역에서만 0.3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다. 업종별 매출·매입**

업종별 매출처를 보면,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업종이 현지 매출 비중이 95.6%로 가장 높고 이어 1차 금속, 화학, 음식료, 기계 등 업종이 70%를 상회한 반면, 전자통신,





섬유의복은 30% 안팎에 불과하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섬유의복 업종이 43.7%로 가장 높고 기타 제조가 31.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제3국 수출은 조립금속과 전자통신이 각각 64.1%, 51.4%로 높다. 매입처를 보면, 현지 매입은 음식료 업종이 94.8%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조립금속, 화학, 1차 금속 등이 50%를 상회한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플라스틱 업종 71.3%, 자동차 업종 50.6%로 높고, 제3국 수입은 전자통신 업종이 22.4%로 가장 높다.

업종별 매출과 매입을 통해 보면, 중국 진출 기업 가운데 조립금속, 전자통신, 플라스틱 업종에 속한 기업이 중국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3국 수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상품수지 기여는 자동차 업종이 42.9억 달러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전자통신 13.2억 달러, 기타제조 10.7억 달러, 조립금속 7.3억 달러, 플라스틱 6.7억 달러 순이다. 한편, 비제조업은 현지 조달, 현지 판매 비중이 매우 높아 상품수지 흑자 기여는 제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다만, 도소매 업종의 상품수지 흑자 기여가 4.7억 달러로 높은 점이 눈에 띈다.

&lt;표 7&gt;

## 업종별 매출과 매입 비중

단위: %

	매출			매입		
	현지	한국	제3국	현지	한국	제3국
자 동 차	95.6	2.8	1.5	48.8	50.6	0.6
1 차 금 속	86.4	3.3	10.3	53.5	44.4	2.0
화 학	85.2	6.9	7.9	56.8	22.3	20.9
음 식 료	81.2	15.0	3.8	94.8	4.1	1.1
기 계	73.8	23.9	2.2	52.8	45.8	1.3
플 라 스틱	40.3	13.6	46.1	28.5	71.3	0.2
섬 유 의 복	30.6	43.7	25.7	47.7	33.6	18.7
전 자 통 신	26.2	22.5	51.4	29.1	48.6	22.4
조 립 금 속	20.4	15.6	64.1	62.0	22.2	15.7
기 타 제 조	45.1	31.5	23.4	39.4	47.2	13.3
도 소 매	98.1	0.8	1.2	81.4	14.9	3.7
운 수 창 고	82.4	17.6	0.0	91.5	8.5	0.0
기타 비제조	95.3	4.7	0.0	95.5	4.4	0.0



## 2. 차입금 조달 실태

중국 진출 현지법인 933개 가운데 54.7%인 510개 기업이 총 95.3억 달러의 자금을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달하였다. 자금조달을 진출 기업의 영업 연도별로 보면, 2001년 이전에 진출한 기업 대비 차입금 조달 기업 비율이 46~49% 수준이며, 2002~06년에는 54~59% 수준이다. 2006년에 영업을 시작한 기업을 포함 직전 3개년의 차입 비율은 58~59%로 영업 당해연도부터 차입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금을 차입한 기업의 투자금액이 55.9억 달러인 점에 비추어 보면, 투자금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70.1%로 현지 사업을 위해 투자금액 이외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였음을 의미한다. 자금 조달처로는 중국계 현지금융이 24.9%인 23.8억 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제3국 은행, 국내은행, 중국 진출 한국계 은행 순이다.

<표 8> 차입금 조달처

단위: %, 백만 달러

	국내 은행	현지 은행			기타 <sup>주)</sup>	계
		한국	중국	제3국		
자금 규모	1,482.0	1,228.3	2,377.6	1,633.8	2,807.9	9,529.6
비 중	15.6	12.9	24.9	17.1	29.5	100

주: 모기업의 대출 1,264.0백만 달러 포함

<표 9> 차입금의 담보 제공처

단위: 건

	국내 은행	현지은행				기타	합계	
		한국계	중국계	제3국	계			
차 입 건 수	122	162	217	68	447	136	705	
보증 처	본 사 담 보	107	142	125	47	314	96	517
	현지법인물적	0	28	73	10	111	9	120
	현지법인신용	0	20	65	16	101	9	110
	합 작 선	0	2	4	1	7	0	7
	제 3 국 은 행	0	1	1	3	5	0	5
	계	107	193	268	77	538	114	759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 제공처를 보면, 총 705건의 차입에 대해 국내 본사의 담보제공이 517건에 해당하는 73.3%나 됐다. 총 차입건수 중 현지법인의 물적 담보와 신용 담보는 32.6%가 활용된 반면, 전체 차입 건수 가운데 합작선의 담보 제공은 7건에 불과하였다. 합작선의 담보 제공이 낮은 데에는 합작법인의 경영을 우리 기업이 주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 V. 시사점 및 진출방안

### 1. 시사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933개 기업의 분석을 통해서 보면, 중국에서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50.3%이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전체에 대한 순이익 실현 가능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분석 대상 기업의 건당 평균투자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서도 밝혔듯이, 분석 대상 기업의 건당 평균투자 규모가 1,088만 달러로 중국에 투자를 한 우리 기업 전체의 건당 평균투자 규모 108만 달러에 비해 10배나 크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적게 포함되었다. 이번 분석 대상에서는 중소기업의 투자가 62.1%에 불과하여 우리의 대 중국 투자 가운데 94.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투자의 실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석이 의미를 갖는 것은 다음 몇 가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투자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순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그림 3>에서처럼 3년 이상 영업활동이 경과해야 투자 기업 중 60% 정도가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형태에 따른 경영성과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그림 5>의 264개 동일기업의 경영성과에서 나타나듯 합작법인이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 등으로 단독법인에 비해 조기에 순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업종별로 제조업의 수익성이 비제조업보다 양호하다. 동일기업에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적자비율이 5.8% 포인트 차이로 제조업의 적자비율이 낮게 나타난 데서 엿볼



수 있다. 다만,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전반적인 중국 투자 진출이 늦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기업의 경우 제조업종 내에서는 조립금속, 자동차, 음식료, 기계 등 업종의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섬유 의복, 화학, 1차 금속, 플라스틱 등 업종이 부진하다. 이는 중국 내 경쟁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중국경제 환경에 따라 변화가 심할 것으로 추측된다. 비제조업의 경우 여객운송을 하는 운수창고 업종이 경영성과가 양호한데, 이는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많지 않고,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한 틈새시장을 적극 활용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넷째, 특정 지역에 진출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다 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동일기업의 경우 베이징, 톈진, 장쑤 등에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베이징, 장쑤, 톈진 등에서 대기업과 공동으로 진출한 협력 업체의 경영성과가 양호한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베이징과 장쑤에 각각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장쑤와 톈진에는 삼성, LG 등이 투자하면서 이들 협력업체의 경영성과 개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연하면, 특정 지역의 경제 환경이나 제도적 특성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공동 진출이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나올 것 같다.

다섯째, 현지법인의 영업이 정상화될수록 순수출 유발효과가 커지지만 현지화 진전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다. <표 5>에서 3개년 공히 결산서를 제출한 기업의 순수출 유발효과가 2004년에 비해 2006년에 30.6% 포인트 감소된 점에서 잘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투자에 따른 순수출 유발효과가 동일기업에서 증가하다 감소하는 점이 최근 우리나라의 대 중국 상품수지 흑자규모의 감소와 맥을 같이 하는 점도 의미 있다.

여섯째, 대체로 내수시장 비중이 높을수록 원·부자재 현지조달 비율이 높고, 제3국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높다. 내수시장을 겨냥한 자동차, 1차 금속, 기계, 음식료 등 업종에서 원·부자재의 현지조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플라스틱, 전자통신 등 업종의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중국 내수시장의 경우 소비자의 기호, 패턴 등이 고려된 반면, 제3국 수출은 품질은 유지하되 가격 경쟁의 확보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곱째, 중국이 생산기지보다는 개척해야 할 시장으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933개 법인의 현지조달과 현지판매가 각각 44.0%, 50.2%이고, 동일기업도 각각 41.7% 56.9%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제3국을 겨냥한 생산기지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다음



아닌 중국 내수시장 지향형의 투자활동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여덟째, 국내 본사의 경영안정이 현지법인 경영정상화의 초석이라는 점이다. 국내 본사가 현지법인이 차입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계와 외국계 금융기관이 자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법인의 원·부자재 수급에 국내 본사가 크게 기여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아홉째, 투자금액 외에 충분한 여유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차입금을 조달한 기업이 평균적으로 투자금액 대비 170%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추가로 조달하였다. 당초 사업 타당성검토 등에서 계획하거나 예상했던 이외의 상황, 이를테면 판로 확보 곤란, 판매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자금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열째, 차입금 조달에서 합작선의 기여도가 높지 않다. 합작선의 담보제공이 7건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데, 이러한 경향은 합작법인의 경영을 우리 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합작선이 자금조달에 소극적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는 일부 합작선이 합작법인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데도 예금 수준의 배당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투자기업의 푸념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 2. 진출 방안

지난해부터 가시화되는 양적 성과 위주에서 질적 효율을 증시하는 중국의 경제정책과 외국인투자정책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sup>8)</sup>로 인해 자원 다소비, 환경오염, 저부가가치 제품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 제품의 수출 시에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 비율을 인하 내지 취소하는가 하면, 도시지역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매년 환경오염 배출과 관련한 영향평가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본급으로 인식되는 최저임금을 빈번하게 인상함으로써 임금이 상승되는 한편, 종신고용 요구와 해고 제한으로 고용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이 직면한 경영 환경에서 앞으로 어떠한 경영 성과를 이루어낼지 자못 걱정스럽다.

8) 중국의 상품수지 흑자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중국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화 경향이 가세하여 2004년 328억 달러이던 것이 2005년 1,021억 달러, 2006년 1,775억 달러, 2007년 2,619억 달러로 확대됨.



<표 10> 최근 중국 투자환경 주요 변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 임금의 잦은 상향 조정</li> <li>· 개인소득세 면세점 월 2,000위안으로 상향</li> </ul>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 낮고 자원 다소비 및 환경오염 유발 제품의 가공무역 금지</li> <li>· 기존 기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li> </ul>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과 노동집약제품의 증치세 환급비율 축소 또는 폐지</li> <li>· 가공도 낮고 국내 수요 많은 광물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li> <li>· 기업소득세 25%로 단일화 시행</li> </ul>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계약을 개별협상에서 단체협상으로 전환 추진</li> <li>· 종신고용 및 해고 제한 등의 노동 유연성 악화</li> <li>· 숙련공 확보 곤란과 잦은 이직</li> <li>· 전체 직원의 1.5~2%의 장애인 고용 요구</li> </ul>
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7월 2.1% 절상 이후 2008년 3월 까지 대략 14% 절상</li> </ul>

자료: 중국 상무부

우리 기업의 대 중국 진출이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로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분석을 토대로 몇 가지 진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을 저임 노동력 활용을 통한 제3국 수출기지라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개척해야할 시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의 투자환경이 임금상승, 환경 규제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 수출이라는 기존 틀에 안주하여서는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제3국 수출 시장을 유지해나가는 한편, 소득수준이 향상되는 중국 내수시장에 적합한 제품 개발로 내수시장도 개척하고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 감소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노동집약적 제품 생산기업은 생산 공정의 자동화로 노동력 활용에서 탈피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후베이성 우한(湖北省 武漢)에 진출한 중소기업은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고용조건 악화와 임금상승 압력을 해소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로 인해 작업환경이 청결해지면서 기업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아 신규 주문이 접수되기도 하였다. 또 칭다오(靑島) 소재 수출기업은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상가와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매년 30% 이상 확대되는 자동차 시장에 진입한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들의 경영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베이징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영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같은 현상은 삼성과 LG그룹의 진출이 많은 장쑤에서도 비슷하다. 이는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이들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이 공동 진출함으로써 부품 현지화를 통해 완성품 생산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때문이다. 반면, 랴오닝에 적지 않은 전자통신 관련 기업이 진출했지만 적자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경쟁력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셋째, 내수시장에 초점을 맞추되 다국적기업과의 경쟁 정도가 낮은 분야이면서 중국 기업에 비해 우리 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업종이나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림 11>에서처럼 운수창고업과 같이 중국의 경쟁력이 높지 않으면서 다국적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분야로 정부 조달물자 시장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나 환경오염 관련 오폐수 처리 시설과 관련된 분야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넷째, 투자자금 외에 현지법인 운영과 관련 추가 자금 조달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무리 사업타당성검토를 잘 하여 예비비를 반영한다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으로 인해 상당수 기업이 영업 시작연도부터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점에 주목하여 충분한 자금 동원능력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합작법인 형태로 사업을 할 경우 합작 계약서에 합작법인이 차입금을 조달할 경우 적어도 합작 쌍방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국내 은행의 중국 진출 확대를 통해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여신지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sup>9)</sup>. 앞서 살펴본 대로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이 전체 총 차입금 중 중국계 은행과 제3국 은행으로부터의 차입비중이 각각 24.9%, 17.1%인 반면, 한국계와 국내 은행에 대한 차입 비중은 총 28.5%에 불과하다. 국내 은행의 중국 영업점이 상하이, 텐진, 베이징, 칭다오를 중심으로 23개가 분포되어 있지만<sup>10)</sup>, 진출 현지법인에 대한 여신지원이 활발하지 못한 때문이다. 이는 여전히 외화 위주의 영업과 지점으로서의 진출

9) 최근 중국이 유동성 확대 억제에 위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우량기업의 대출금리가 Libor(6M)에 스프레드가 200bp를 상회하고 있음.

10) 중국 주요 도시별 한국계 은행 영업점 설치 현황

도시	北京	上海	天津	青島	瀋陽	大連	烟臺	廣州	蘇州	深圳
은행	신한, 외환, 우리(법인), 하나(법인)	산업, 신한, 외환, 우리	기업, 신한, 외환	기업, 신한, 하나	기업, 하나	외환	기업	산업, 국민	우리, 기업	우리

자료: 금융감독원



에 따른 자금규모 제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1)</sup>.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난해 말 우리와 하나 은행이 베이징에 법인을 설립했고, 신한은행도 금년에 베이징에 법인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상황이 다소 개선될 여지는 있다.

한편, 국내 경영 환경이 어렵더라도 국내 사업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로 인력 확보 곤란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서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업 기반을 통째로 중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진데다 현지법인 경영실적이 좋지 않고 투자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유동성이 풍부한 중국 은행들이라도 현지법인 담보로만 대출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 <표 11>에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경기과열 억제로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최근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의 차입 여건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K**

11) 외국은행의 중국 지점의 자본금 규모는 1억 위안(1,370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용 자본 규모가 많지 않은 상황임. 게다가 2007년 3월 중국 외환관리국이 외화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금년 3월까지 1년 이하 단기외채 한도를 2006년 당해 은행 한도의 60%로 낮추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 곤란. 지점 설립 3년 이상, 2년 연속 이익 발생할 경우 위안화 영입이 가능하지만, 외국은행의 지점은 위안화 예금을 100만 위안 이상만 유치할 수 있는 데다 위안화 자금 차입도 자본금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위안화 자금 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참고문헌>

1. 김주영, '중국 진출 현지법인의 경영성과가 세계 전체보다 양호', 수은해외경제, 2006. 6.
2. \_\_\_\_\_, '중국의 최근 투자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KIEP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2006. 9. 21.
3. \_\_\_\_\_, '중국 진출 현지법인의 경영실태 분석과 시사점', 수은해외경제, 2007. 3.
4. 금융허브지원팀, '금융회사 중국진출 보고서', 재정경제부, 2007. 9.
5. 산업자원부, 산업연구원, '2007년도 차이나 리스크 이슈 분석', 2007. 12.
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7. [www.fss.or.kr](http://www.fss.or.kr)(금융감독원)